



NEWS LETTER

2020년 9월 7일 Vol. 383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4회 연속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 이상 81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경우 혈액이 다른 부위로 통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평가 항목은 수술 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재입원률 등 총 14개 지표다. 평가 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4회 연속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을 획득해 심혈관질환 치료 우수성을 입증했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의 개발 과제가 2020년 2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사업단(과기, 산업, 복지, 식약)의 4차 산업 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와 의료공공복지 구현을 위한 것이다. 김동억 교수 연구팀은 ‘뇌영상-임상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뇌경색 진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앞으로 5년간 3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 교수는 신경과 류위선 교수 및 세부 과제 공동 연구를 담당하는 서울 삼성의료원 신경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그리고 의료인공지능 1호 상장기업 JLK Inspection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번 과제를 통해 초급성기/급성기/예방적 뇌경색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진료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인공지능 뇌경색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김동억 교수는 지난 2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사업’에도 선정되어 5년간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최초의 자연발생적 급성 뇌경색 동물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의대 학생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증 200매 기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8월 2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200여 개의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성민 의료원장 및 이해원 병원장을 비롯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현재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19 혈액수급 위기 극복 운동’에 국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에 동참한 의과대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학생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귀한 헌혈증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에 전달해 소중한 생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교직원 행동수칙 안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교직원 행동수칙을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장은 “현재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누구나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며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과 환자, 환자가족의 안전을 위해 국민 행동 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전국에 실시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